

한부모 여성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강 기 정 (천안대학교 기독교복지학 전공 조교수)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을 반영하는 한부모가족은 전체가구 중 9.4%를 넘으며, 이 중 80%가 여성 한부모가족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한부모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한부모가족의 실태 및 현황조사,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사회관계망의 차원에서 자조집단의 효과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문제인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는 2003년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회의 사전면접과 80분씩 8회의 집단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회의 추후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기성장 집단 프로그램을 실험적 처치로 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8명과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 8명 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을 비교하는 사전 사후 통제 집단설계(Pres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채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여부를 위해 쌍표본 t-검증(Paired-Samples t-test),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쌍표본 t-검증(Paired-Samples t-test), 집단 과정에서의 개인별 행동변화와 회기별 변화는 집단 과정을 녹음한 자료와 2인의 연구자가 매회기 관찰한 집단원 에 대한 행동관찰기록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적응의 평균은 실험집단이 36.17점, 통제집단이 35.17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의 동질집단을 알 수 있다.

둘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는 $p < .05$ 수준에서 양 검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차이에 대한 쌍표본 t검증에 의해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은 참여한 한부모 여성의 사회적 적응력을 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양상은 거부적이고 갈등적이며 소극적이었으나 회기를 더해 갈수록 성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중간단계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한 집단역동이 일어났으며 성원들 서로간에 지지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의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종결단계에서는 각자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드러냈다.

넷째, 집단성원의 개인별 변화는 전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증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였다.